역경·어린이 포교 '남다른 열정'
한글대장경 회향땐 감격의 눈물

일상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을 읊어 보이셨다.

일체법불생(一切法不生)
일체법불멸(一切法不滅)
약능여시해(若能如是解)
제불상현전(諸佛常現前)

어떤 것도 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도리를 알면 부처를 보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신년이라서 그런지 즉석에서 생각나는 질문 하나. 스님의 새해 소망이 궁금했던 것이다.

"다 늙은 사람이 소망은 무슨..."

다소 수줍어하는 듯한 웃음을 앞세우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아산에 지은 보문사에 신도가 많지 않아.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힘이 된다면 아직 마무리 못한 그 절 불사를 마무리 했으면 해."

훗날 불교 인물사에서 석주스님의 어떤 업적이 가장 부각될까. 다시 물을 필요 없이 역경불사에 지대한 공을 남긴 스님으로 기록될 것이다. 스님은 "한자로 된 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만 역경이 아니라 **우리글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함으로써 우리의 정신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녹이는 것이 역경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족자존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경전의 한글화는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석주스님은 우리시대의 역경불사 특히 지난해 318권으로 회향된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불사에 공로가 지대하다. 동국역경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역경불사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석주스님은 역경된 경전들을 책으로 묶어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부처님 가르침은 말과 문자에 있는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해 진리를 맛보는 것이라 강조하는 석주스님.

1961년 법보원 설립

1961년 5월에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격인 법보원을 설립해 활발하게 불서들을 출판, 역경불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석주스님이다.

"그때 말이야. 내가 스무 살 좀 넘은 때였는데, 살펴보니까 신도들이 읽을 책이 없어. 기껏 손바닥만한 지송경 몇 가지와 병풍처럼 접어서 들고 다니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보문품' 밖에 쓰이는 것이 없더라고. 그리고 적음스님이 선학원에서 낸 '육조대사전' '부설거사' '극락 가는 길' 등의 책이 있었어. 또 대각사에서 용성스님이 한글로 된 경전을 내고 있었지.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나왔고… 뭐 그렇게 불교책이 조금씩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내가 운허스님과 인연이 되어 법보원을 열어 운허스님 책과 법정스님 책을 냈지."

석주스님은 법보원을 통해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승만경' 등 10종 이상의 불서를 펴냈다. 주로 불자들이 읽고 신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류들이어서 인기가 좋았다는 회고다.

석주스님은 지난해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되어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열었을 때 연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단지, 역경후원회 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일생의 염원이었던 한글대장경 불사가 원만 회향되는 순간에 온 몸으로 느끼는 희열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법보원을 운영하다가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한 종단에 두 개의 역경기관이 있을 필요 없다. 한 곳에서 잘 하면 된다"며 법보원의 모든 판권과 운영 노하우를 동국역경원에 넘겨주었었다.

한글대장경 완간기념 회향대법회가 한창 준비되고 있는 지난해 7월이었다.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린 역경후원회 법회(삼장법회)에서 역경원장 월운스님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종단에 석주큰스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한글대장경이 완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었다. 다소 쑥스러워 하며 법상에 앉아 있는 석주스님을 향해 월운스님이 3배를 하자 대중들도 일어나 3배를 함께 올린 적이 있다. 전혀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석주스님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러십니까.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모두들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으니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우리 사부대중 모두의 영광입니다**"라는 말로 그날의 법어를 대신했었다.

역경원 최훤환 부장은 "석주스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경불사를 돕고 계시는 어른"이라며 "후원회 법회에서 모시겠다고 하면 덥거나 춥거나를 가리지 않고 달려오시고 어떤 법회나 모임에 가서도 역경불사에 동참하라고 강조 하신다"고 말했다.

지난 37년간의 불사로 한글대장경이 완성된 것에 대해 석주 스님은 "잘 되었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역경불사는 종단이나 역경원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부대중, 나아가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진행 했어야 할 불사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종단의 지원이 미약했던 것이나 승가의 관심 부족이 불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서운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

"'법보' 모시기 적극동참"

"어찌 됐거나 이제 절마다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일이 남았어. 역경불사에는 마음을 모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만들어 놓은 한글대장경을 잘 활용하는 데는 사부대중이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우리글로 된 부처님 말씀을 두루 읽게 하고 또 법보(法寶)로 사찰 마다 모시는 일은 스님들이 나서야 해.** 그런데 그렇질 못하거든.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지난해 보급운동을 했다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한글대장경 관련 캠페인의 실무를 맡았던 기자가 30여 질을 보급했다고 답했다) 아이구, 그래 그렇다니까. 책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 한 질 모시는 데는 스님들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니야. 신도들에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 해 보라고. 다들 법보를 모시는 불사에 적극 동참할 것이야. 단순한 책이 아니라 법보인데 그걸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니 사람사이 신뢰 무너져"

한글대장경 얘기로 화제가 바뀌자 자리를 고쳐 앉으며 이야기를 끊지 않는 석주스님은 못내 서운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전산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한글대장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불사가 남았다. 평생 한글대장경 불사를 외호해 온 석주스님은 "그것도 시절인연을 따르는 지혜로운 불사"라며 "**부처님 가르침은 문자에도 말에도 있지 않지만 문자와 말을 의지해 그 진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역경불사건 전산화 불사건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주길 바랄 뿐"이라 주문했다.

이판의 길과 사판의 길에서 걸림이 없었던 석주스님. 이제 바깥일로부터 초월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석주스님을 가까이서 뵈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꼭 어린 아이 같은 노스님.'

글=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성륜스님

성륜스님의 그림은 따뜻하다. 묵향이 은은한 기존의 선화(禪畵)와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색깔은 생동감으로 활기에 차 있다. 그 색깔들은 그림 속에서 화려하게 꾸며주는 대상과는 관계없이 멈춰선 채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향기와 색채 그리고 소리들이 서로 교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면의 그림 속에 멈춰선 물고기의 다음 움직임이 느껴지듯이…

절집에선 좀체로 볼 수 없는 연두빛깔을 처음 접했을 때 난 피식 웃고 말았다. 처음 내가 성륜스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스님의 색깔이 연두빛이었노라고 하면 스님도 웃으실 게다. 그림을 하시기 훨씬 전 성륜스님이 법주사강원 학인이었을 때 처음 뵈었다. 아마 청소년 지도법사를 위한 연수회였던 것 같다. 스님은 우리 조에 속했는데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그래서 자주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감성이 순수한 분이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한동안은 가까운 도반이었는데 내가 스님의 예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은 뜨악하게 지내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한 작가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품을 그가 만들어 낸 작품 속에서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가 살아 온 세월과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볼

풍부한 감성 선화로 한껏 표현
볼수록 행복감 느끼는 그림들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설사 어느 정도 알고있다 해도 그 사람의 예술적 감수성까지 이해하는 데는 그의 작품과 함께 그의 사람됨을 좋아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다고 본다. 어쩌면 나는 스님의 그림 속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납다른 열정이 확연히 살아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머리깎고 먹물옷 입은 수행자의 모든 행동은 다 깨달음으로 가는 긴 여정 중 하나란 것을 아는 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경전이 되며, 부처님의 행동은 율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 된다. 그것은 다시 수행자인 스님들과 예술가들을 통해 이 시대의 문화적 보배로 태어나게 된다. 그중 담박에 가슴에 와닿는 것은 물론 그림이다. 수행하는 이가 자신의 수행세계를 무심하게 그린 그림을 선화(禪畵)라 부른다. 선화는 수행을 통해 경험한 '깨침의 느낌'과 그 깨침의 '자유'가 주는 마음의 세계를 그려 보이는 것일게다. 사람들은 선화를 보면서 일상에서 느낀 자신의 깨달음이 작가와 합께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깨달은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수좌가 공부한 것을 고승에게 점검받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깨달음이란 체험을 문자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승이 침묵하고 선화가는 조형언어로 고개를 돌리며 침묵한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깊은 수행을 절묘하게 표현할 예술적 재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고정관념과 분별을 떠난 대립과 차별이 없어진 걸림없는 대 자유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은 더욱 어떤 틀에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스님의 예술적 감성에 실려 표현되는 그림들이 이제는 좋다. 묵향 그윽한 노스님의 선화도 붉은 빛과 거친 붓놀림을 지닌 선화의 매력을 놓을 수는 없지만 볼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깊이를 느끼며 행복감을 주는 성륜 스님의 그림도 좋다. 행복함을 주는 그림 저 너머로 가장 논리적이며 논리를 벗어난 스님에 삶의 모습이 서려있어서인지도 모른다.언젠가 인사동에 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스님의 생활 공간을 겸한 작업실엘 간 적이 있는데 그 생경한 분위기가 나를 상당히 거북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던 스님이 내 속내를 알았는지 한마디 했다. "자유롭고 싶었지 뭐, 하하!" "절에선 안 자



유스럽던가?" "내가 만약 스님네 절에 산다고 생각해 봐, 오로지 그림만을 그리려는 내게 좋은 느낌일 수 있을까? 그런 정신적, 육체적인 규제 속에서는 내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 또 남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싫고. 그런 자유를 원하는 내가 무슨 주지를 살겠어, 못하지! 수행은 내게 그림이고,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라."

종교와 예술은 둘 다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난 삶의 깊이에서부터 솟아나온다. 만약 정갈한 수행공간에서라면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다. 한동안 성륜스님의 그림은 밝은 색으로 가다가 잿빛으로 자신의 향기를 실어내고 '와불 일어나시다'와 귀여운 느낌의 춤추는 달마를 거치는 동안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그 뒤에 심곡암 그림을 보면서 나는 스님이 점점 인사동을 떠나 절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면서 노을이 지는 파간의 아름다운 정경들을 그림으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서울 반야사 주지

제 4기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 및 신입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 모집대상 – 스님, 법사, 포교사, 의식에 관심있는 자 (각 종단을 초월하여 모집 함)
2. 교육내용
 (1) 정규과정 : 2년
  1) 불공제반의식
  2)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 등)다루는 법
  3) 바라, 나비춤(도랑게, 다게, 지옥게작법 등)
  4) 화청(회심곡)
  5) 상주권공(범패)
  6) 특별과정(점안의식, 가사이운, 예수재, 짓소리, 신중작법)
3. 모집기간 – 2002년 2월 28일까지
4. 모집인원 – 30명
5. 입 학 식 – 2002년 3월 13일 오후 2시 본대학 법당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증명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2통

※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은 소개하여 드립니다.
※ 본 대학 학장 혜공스님 음반 및 영상비디오 안내
 1) 음반 – 대령/관욕, 화청1, 화청2, 부모은중경, 상단상주권, 공, 풍성/전통예불
 2) 영상비디오 – 대령/관욕, 상주권공지장불공의식, 신중작법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062-362-8604 / 011-624-8604
명예학장 일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보유자)
학 장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전수자)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함.
◈누 비 : 고급 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 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 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비	上 下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바랑(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 302호
전 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